YUANTA APEC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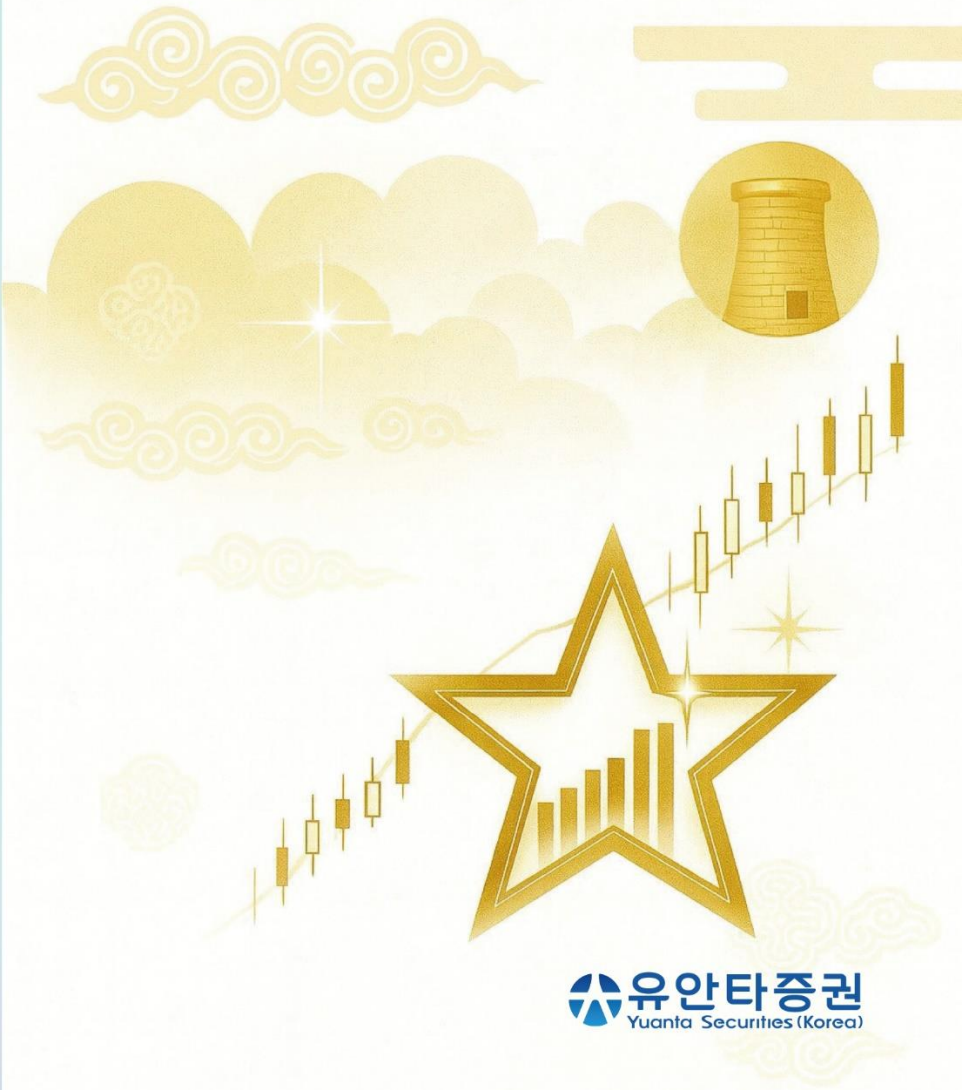
APEC 2025 KOREA

산업별 관전 포인트

이승은 화장품/의료기기/유통 seungeun.lee@yuantakorea.com

이환욱 미디어/엔터/디지털자산 hwanwook.lee@yuantakorea.com

백길현 반도체 gilhyun.baik@yuantakorea.com



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Korea)

YUANTA

APEC 2025

산업별 관전 포인트

APEC 2025
KOREA

SUMMARY

[화장품/유통] APEC 2025, 소비 지형을 바꾸다

- 2025년 APEC 한국 개최가 K-뷰티와 유통 산업의 전환점을 보여줌. 면세점 중심에서 도심 리테일로 외국인 소비가 이동했고, CJ올리브영은 외국인 매출 비중 26.4%를 기록하며 방한 외국인 10명 중 8명이 방문하는 필수 코스가 됨
-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올리브영 쇼핑과 일본 총리의 한국 화장품 사용 언급은 K-뷰티가 문화외교 매개체로 자리잡았음을 상징함. 공항 면세점에서 체험형 리테일로, 럭셔리 브랜드에서 실용 트렌드 중심 브랜드로, 전통 광고에서 SNS 바이럴 마케팅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됨.
- 패러다임 전환의 수혜주는 에이피알(해외 매출 78%)과 현대백화점(외국인 매출 15% 돌파)임. APEC 2025가 확인시켜준 새로운 K-소비 패러다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됨.

[미디어/엔터] '삶의 질' 향상 & '상호 방문 편리화' 확대

-11년 만에 성사된 中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 그리고 韓 – 中 정상회담 일정은 그 자체 만으로 큰 의미를 갖으며, '한한령' 해제에 관한 기대감이 엔터/레저/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친 증시 훈풍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됨.

-특히, 문화/인적 교류 부문에서 '삶의 질 협력'과 '상호 방문 편리화' 등 큰 틀에서 정책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업종 전반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재차 부각될 것이라 예상됨.

APEC 2025
KOREA

SUMMARY

[반도체] AI 생태계 내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글로벌 AI 확산은 이제 데이터 센터–반도체–로보틱스–클라우드로 이어지는 산업 가치 사슬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GPU는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의 10년을 여는 초입에 있다"고 언급했듯, AI 인프라 투자는 초기 확산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 가속 국면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AI 연산 효율의 근간이자 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의 'AI 팩토리' 구축을 통해 제조–설계–테스트 전 과정을 AI로 통합하는 지능형 생산 체계를 구현 중이며, SK하이닉스 역시 2026년까지의 HBM 공급 협의를 마무리하며 차세대 AI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고객–공급자 관계를 넘어, AI–반도체–로보틱스가 결합된 수직적 혁신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주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이번 무역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향후 관세 정책의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으나, 동시에 미국의 2,000억 달러 규모 AI·첨단 제조 투자 계획과 맞물리며, 한국 반도체 기업에게는 미국 내 공급망 파트너로서의 전략적 역할 확대 기회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동시에 글로벌 AI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AI 반도체의 핵심 밸류체인 허브'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메모리·파운드리·AI 반도체·로보틱스 등 전방위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한국은 향후 AI 시대의 산업 생산성과 컴퓨팅 효율을 재정의하는 주체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AI 인프라 확산이 중장기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메모리 중심의 AI 밸류체인에 대한 구조적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APEC 2025
KOREA

CONTENTS

화장품/유통 07

APEC 2025 Review: 시대가 변했다 08

APEC 2025 영향: K-소비 권력이 바뀌었다 11

전망 및 전략: K-소비 대전환, 수혜주는? 13

미디어/엔터 15

2025년 11월 1일 韓-中 정상회담 16

K-엔터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 전망 17

기업분석: 하이브 (352820) 18

반도체 22

정상외교와 산업행동이 결합된 APEC 2025 23

NVIDIA – 삼성전자: 25년 협력의 결실 -> 진화하는 기술 동맹 24

NVIDIA – SK하이닉스: 핵심 밸류체인 파트너로서 입지 강화 26

반도체 업종 전망 및 투자 전략 27

APEC 2025

화장품/유통

이승은

화장품/의료기기/유통

02 3770 5588

seungeun.lee@yuantakorea.com

화장품/유통: APEC 2025, 소비 지형을 바꾸다

1. APEC 2025 Review: 시대가 변했다

APEC 2025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면서, 화장품과 유통 업계에는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서는 특수 효과가 나타났다. K-뷰티 브랜드들은 정상회의 부대행사 K-Beauty Pavilion 전시와 VIP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글로벌 노출을 크게 확대했다. 유통업계 역시 행사 기간 급증한 외국인 방문객과 쇼핑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였다.

2014년 7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한국 면세점에서 LG생활건강의 '후'를 구매한 뒤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면세점 쇼핑'이 필수 관광 루틴으로 자리잡았다면, 이제 그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실제 CJ올리브영은 올해 상반기 오프라인 매장 매출 중 외국인 비중이 26.4%로 처음 25%를 넘었다고 발표했고, 방한 외국인 10명 중 8명이 올리브영을 찾았다는 통계도 공개되었다. 이처럼 면세점 위주의 과거와 달리 도심 리테일이 외국인 소비의 중심 무대로 자리잡았고, 업계 전반에서는 소비 트렌드의 판도가 변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번 정상회의 기간 등장한 몇 가지 상징적 장면들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미국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Karoline Leavitt)은 APEC 일정 중 올리브영 매장을 찾아 한국 화장품 13종을 직접 구매했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South Korea skincare finds'라는 문구와 함께 제품 사진을 올렸다. 그녀가 공개한 제품들 중 일부는 'Olive Young Exclusive' 라벨이 붙어 있어 올리브영에서 구매했음을 암시했다. 백악관 대변인의 K-뷰티 쇼핑 인증샷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 언론까지 보도할 정도로 화제가 되며, SNS를 통한 글로벌 바이럴 파급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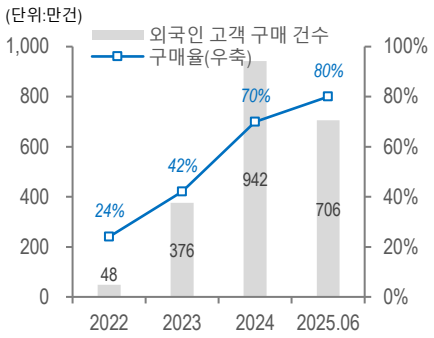
또 하나의 장면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발언이다. 그는 2025년 10월 2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을 아주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도 사용하며 한국 드라마도 즐겨본다"고 언급했다. 일본 총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 화장품 사용을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K-뷰티가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문화·외교 교류의 매개체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APEC 2025는 과거 면세점+럭셔리 중심이었던 K-뷰티 소비 지형이 도심 체험형+디지털 확산형으로 전환되었음을 공식화한 이벤트였다. K-뷰티 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전 세계 실제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는 접점을 확보했고, 유통업계도 '면세 매출 특수'에 기대던 전략에서 벗어나 체험·관광·SNS 바이럴 중심의 리테일로 방향 전환을 분명히 했다.

K-Beauty 구매 인증한 Karoline Leavitt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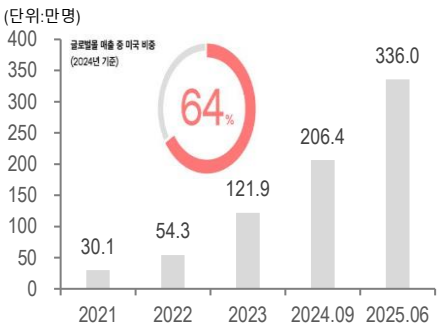
자료: Karoline Leavitt Instagram, Wikipedi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CJ 올리브영 외국인 고객 구매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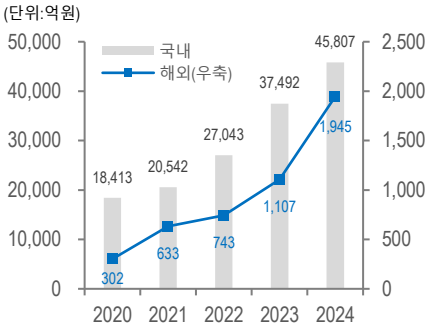
주: 25년 외국인 고객 구매 건수는 추정치
자료: CJ올리브영,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CJ 올리브영 글로벌몰 회원 수



자료: CJ올리브영,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CJ 올리브영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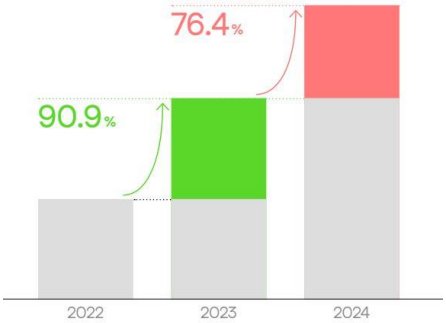


자료: DART,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CJ 올리브영 글로벌 진출 현황

자료: CJ올리브영,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CJ 올리브영 글로벌몰 중소 브랜드 매출액 성장 추이



자료: CJ올리브영,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Top 50 Best Sellers in Skin Care on Amazon US (K-Beauty ranks #4, #8, #17, #29, #30, #41, #43)

주: 2025.11.01. 기준, 자료: Amazon,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APEC 2025 영향: K-소비 권력이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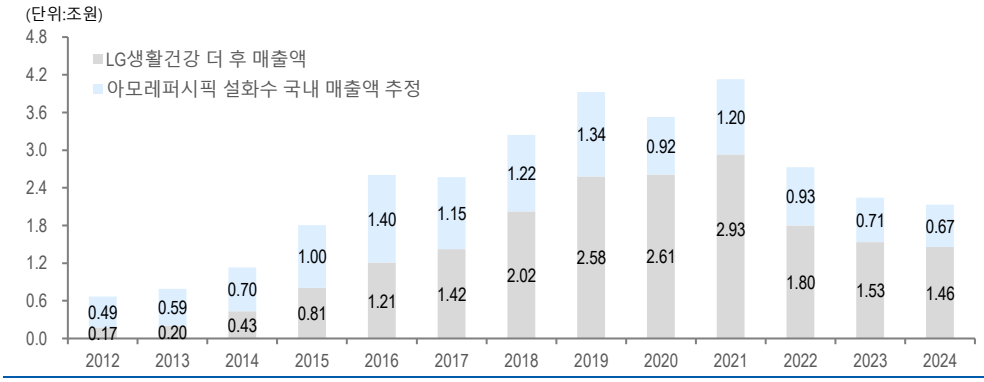
변화의 핵심은 '소비 주도 세력의 교체'다. APEC 2025를 기점으로 외국인들의 구매 동선과 선호 브랜드에서 세대 교체와 구조 재편이 가속화되었다. 과거에는 한국 방문객들이 시내/공항 면세점에서 설화수, 후 같은 고가 럭셔리 화장품을 주로 구매했지만, 이제는 도심 매장의 실용적이고 트렌디한 브랜드를 선택하는 양상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는 산업 전반의 채널·브랜드 지형 변화로 판단된다.

① 유통 채널의 이동: 외국인 소비의 핵심 채널이 공항 면세구역에서 도심 리테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면세사업자인 호텔신라와 신세계DF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일부 철수를 결정했는데, 이는 임대료 부담과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한 면세 수요 부진이 배경이다. 더 이상 면세점이 외국인 쇼핑의 필수 코스가 아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제 해외 관광객의 쇼핑 동선은 '공항 → 시내 매장 → SNS 공유'로 재편되고 있다. 서울 명동·강남 등지의 플래그십 스토어와 편집샵들이 면세점을 대체해 관광객 몰입형 쇼핑 허브 역할을 부각시키는 추세다.

② 브랜드 주도권의 변화: K-뷰티 브랜드 판도 역시 급변하고 있다. 한때 외국인 인기 상위권을 독식했던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LG생활건강의 후 등 전통 대형사 브랜드 대신, 최근에는 신흥 인디 브랜드들이 더 자주 거론되고 실제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브랜드는 가격 경쟁력보다는 뛰어난 제품 효능과 SNS 화제성을 무기로 MZ세대와 글로벌 소비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앞서 레빗 대변인이 공개한 K-뷰티 쇼핑 목록에서도 대형 럭셔리 브랜드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대신 올리브영 한정 기획세트나 신생 기능성 제품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K-뷰티=럭셔리가 통하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 외국인들은 '내 피부에 실제로 효과가 좋은 한국 제품'을 찾아 직접 경험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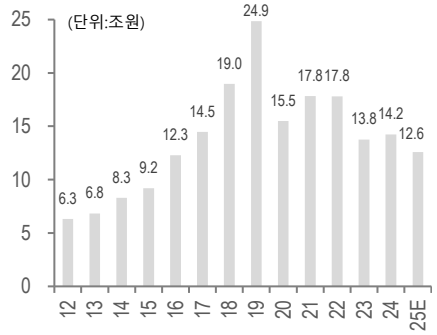
③ SNS를 통한 글로벌 확산: 소비 주도권이 광고에서 콘텐츠로 이동한 점도 두드러진 변화다. 레빗 대변인의 올리브영 인증샷 한 장이 전 세계 주요 매체에 보도되고, 수백만 팔로워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등 전통 매체나 광고로는 어려운 폭발적 바이럴이 SNS를 통해 이루어졌다. K-뷰티 홍보 무대가 이제 거대한 옥외광고판이 아니라 소비자 개개인의 인스타그램 피드가 된 셈이다. 기업들은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하거나,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경험 요소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결국 APEC 2025는 면세점 중심이던 K-뷰티 유통 구조가 SNS 기반의 소비자 직행 구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일시적인 이벤트 효과가 아니라, 향후 화장품·유통 기업들의 전략 방향을 결정지을 구조적 변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LG 생활건강 후 &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합산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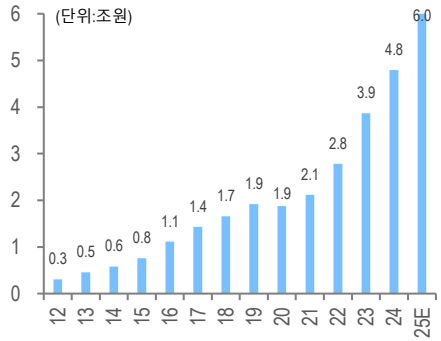
자료: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면세점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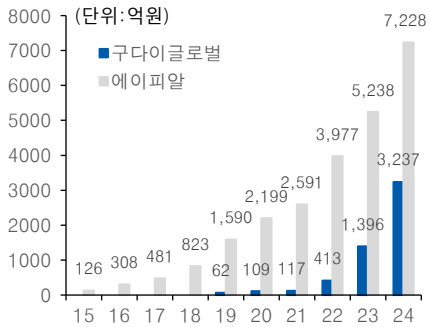
자료: 한국면세점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CJ 올리브영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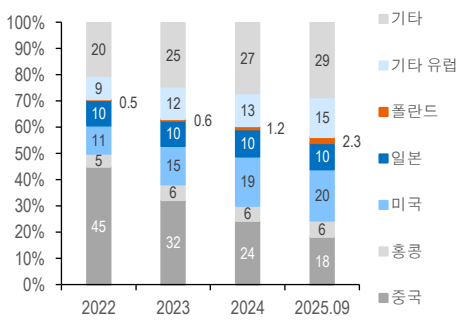
자료: CJ올리브영,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구다이글로벌 & 에이피알 매출액



자료: DART,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화장품 수출액



주: HS CODE 3304, 3305, 3303, 3307의 합산, 자료: TRASS, 유안타증권

3. 전망 및 전략: K-소비 대전환, 수혜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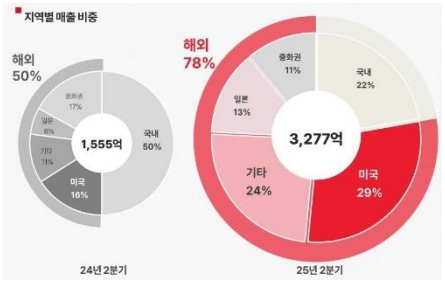
APEC 2025가 확인해 준 산업 재편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화장품 섹터에서는 글로벌 SNS 확산과 소비자 직접 접점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가, 유통 섹터에서는 면세 의존도가 낮고 도심형 플래그십과 외국인 소비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다. 이 기준에서 볼 때 에이피알과 현대백화점이 각 섹터의 대표 수혜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 대변인의 올리브영 쇼핑 목록 최상단에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브랜드가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동사는 이미 2025년 2분기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78%에 달해 전년 동기 50% 대비 28%p나 상승했다. 이는 K-뷰티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빠른 수출 다변화 속도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자사몰과 크로스보더 유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리테일 파트너와의 B2B 협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26년부터는 썬케어와 헤어케어 카테고리를 추가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APEC의 숨은 승자다. 유통 섹터의 구조적 전환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호텔신라나 신세계와 달리 공항면세점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로 낙찰받은 점이 강점이 되었다. 더현대서울의 외국인 매출 비중은 이미 15%를 돌파했으며, 'K-패션의 성지'로 불리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잡았다. 특히 K-쇼핑 체험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이 주효했다. 더현대서울과 무역센터점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K-뷰티, K-패션, K-푸드를 아우르는 종합 문화 체험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SNS로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프리미엄 브랜드 큐레이션과 팝업 스토어 기획력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경험형 리테일'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업 모델을 통해 외국인 매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구조적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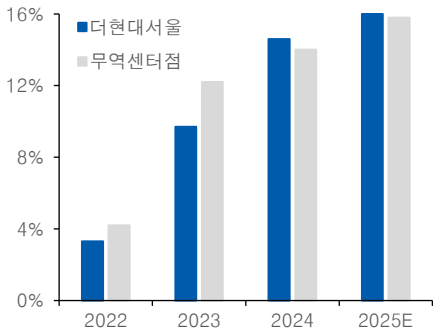
APEC 2025가 보여준 구조적 변화의 방향성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다. 면세점과 럭셔리 중심의 구조는 이미 과거가 되었고, 도심 체험형 매장과 SNS 바이럴을 통한 글로벌 확산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았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재편해야 할 시점이다. 에이피알과 현대백화점은 각각 '글로벌 성장주'와 '도심 체험형 플랫폼 대표주'로서 이 거대한 변화의 최대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에이피알 지역별 매출 비중 변화



자료: 에이피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현대백화점 주요 점포 외국인 매출액 비중



자료: 현대백화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3년 당시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구역별 면세사업자 및 예상 임대료 — 2019년 인천공항 출발 여객수: 35,569,629 명 가정

구분	사업권	사업자	면적 (㎡)	매장수 (개)	품목 구성	최저 수용금액 (원)	입찰 금액 (원)	최저금액 대비차이	예상 임대료 (억원)
일반기업	DF1	호텔신라	4,258	17	화장품.향수/주류.담배	5,346	8,987	*+68%*	3,197
	DF2	신세계디에프	4,709	16	화장품.향수/주류.담배	5,617	9,020	*+61%*	3,208
	DF3	호텔신라	4,649	12	패션/액세서리/부띠끄	2,078	2,530	*+22%*	900
	DF4	신세계디에프	5,198	13	패션/액세서리/부띠끄	1,863	2,506	*+35%*	891
	DF5	**현대백화점면세점**	**2,078**	**5**	**부띠끄**	**1,056**	**1,109**	***+5%***	**394**
중소중견 기업	DF8	경복궁면세점	1,459	6	전품목	583			
	DF9	시티플러스	1,821	8	전품목	710			

주: 운영기간은 2023 년 7 월부터 총 10 년, 자료: 인천공항공사, 관세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PEC 2025

미디어/엔터

이환욱

미디어/엔터/디지털자산

02 3770 5590

hwanwook.lee@yuantakorea.com

‘삶의 질’ 향상 & ‘상호 방문 편리화’ 확대

1. 2025년 11월 1일 韓-中 정상회담

-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中 시진핑 주석

韓 정부는 경주 APEC 일정과 연동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국빈 자격으로 초청하였다. 11년 만에 성사된 中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 그리고 韓 – 中 정상회담 일정은 그 자체 만으로 큰 의미를 갖으며, ‘한한령’ 해제에 관한 기대감이 엔터/레저/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친 증시 훈풍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정상 회담에서는 외교, 안보, 경제 그리고 문화/인적 교류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히 문화/인적 교류 부문에서는 ‘삶의 질 협력’과 ‘상호 방문 편리화’ 등 큰 틀에서 정책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세부 조치에 관한 사항은 후속 협의를 통해 그 범위와 속도가 가늠될 전망이나, 김영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중문화교류 위원장(JYP)이 직접 시진핑 주석에 ‘中 북경 대규모 오프라인 공연 개최’ 등과 같은 실질적인 제안과 긍정적인 호응을 유도했다는 것 만으로도 관련 산업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된다.

한-중 관계 개선 흐름(24.05~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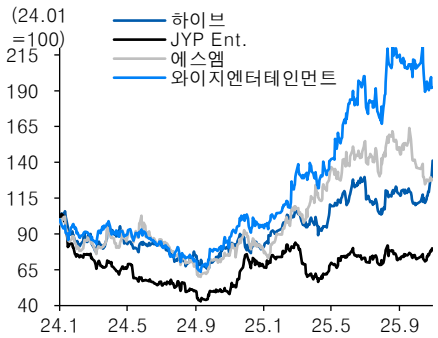
날짜	내용
24.05.03	소프라노 ‘조수미’ 中 베이징 공연 개최
24.10.18	韓 인디밴드 ‘검정치마’ 中 산시성 시안 공연 개최
24.10.28	디어유 & 텐센트 뮤직 계약 체결
24.11.01	중국 한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25년 말까지)
24.11.23	한-중 문화 장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쑨예리 중국 문화여유부장) 회담
24.12.12	한중 ‘제28차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25.02.07	우원식 국회의장 – 中 시진핑 주석 회담
25.02.19	中 국무원 판공청 ‘2025년 외국인 투자 안정 행동계획’ 발표
25.03.07	韓 영화 중국 본토 개봉 (봉준호 감독 ‘미키17’ 개봉)
25.03.20	韓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도입 허용 (3Q25 시행)
25.04.12	韓 3인조 래퍼 ‘호미들’ 中 후베이성 우한시 공연 개최
25.04.12~13	‘워터밤 하이난 2025’ 개최
25.04.25	K-POP 한중평화협회 출범
25.09.29	한국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허용 시작(~26.06.30까지)
25.10.31~11.01	경주 APEC – 이재명 대통령 & 시진핑 주석 정상회의

자료: 언론종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K-엔터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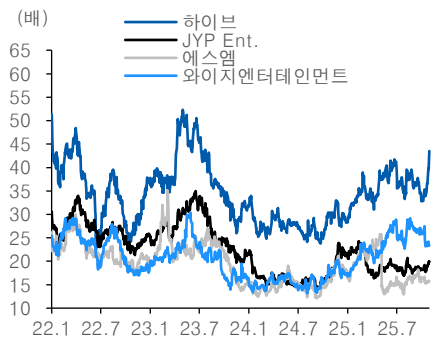
현재 엔터 업종의 투자 매력도는 높은 구간이라 판단하는데, 지난 3개 분기(4Q24~2Q25) 상승 랠리 이후 약 5개월간의 가격 & 기간 조정으로 다시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상황에 위치해 있다. 지난 2Q25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으로 재차 부각될 수 있는 우호적인 상황인데 반해, 대장주 하이브를 제외한 엔터 3사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인 밴드 하단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 각사별로 현재 12개월 선행 기준 FWD P/E는 하이브 43.5배, JYP Ent 19.9배, SM Ent 15.7배, YG Ent 23.4배 수준이다.

국내 엔터 4사 주가 추이(24.01~현재)



자료: 퀀티와이즈,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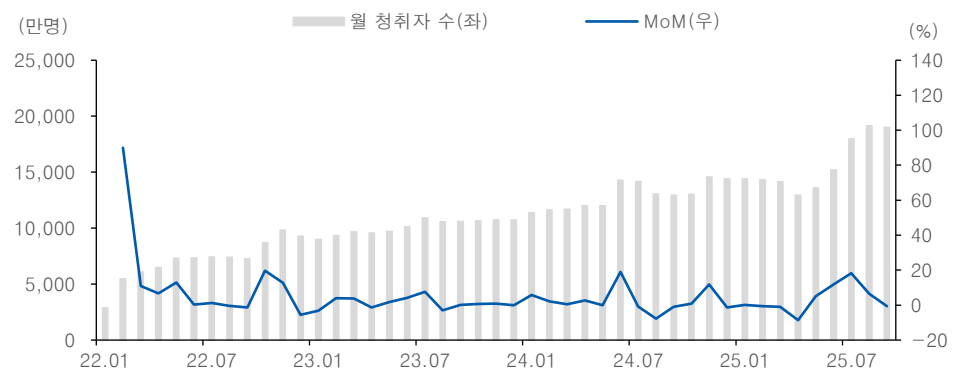
국내 엔터 4사 P/E 추이(_Fwd 12M))



자료: 퀀티와이즈,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엔터 4사 주요 아티스트 IP 합산(BTS/뉴진스 제외) 스포티파이 월 청취자 수(3Q25 평균)는 약 1.9억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9.7%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중이다.

주요 K-pop 아티스트 IP 합산(BTS/뉴진스 제외) 스포티파이 월 청취자 수 추이



자료: 스포티파이,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하이브 (352820)

하이브 (352820) BUY

2026 실적 성장성과 주가 상승 모멘텀이 한가득

한-중 관계 개선 기조가 강화되는 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 엔터 업종내 대장주 '하이브'의 내년도 주가 상승률은 지수(코스피) 대비 아웃포펌할 것이라 전망한다.

'실적 성장성'과 '주가 상승 모멘텀'이 충분한 상황으로, 1) 실적 성장성은 BTS의 컴백 효과(단일 IP 추가 매출액 1조원 상회 전망)가 뚜렷하게 반영될 예정이며, 2) 美 현지화 그룹 '캣츠아이'의 수익화 구간 진입은 K-엔터 신규 확장 전략(시스템 수출)으로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2H25 진행된 라틴 프로젝트(2팀)를 비롯해 내년에도 북미 보이 & 걸 그룹이 각각 한팀씩 속도감 있게 추가 런칭될 예정이다.

2026 연결 기준 예상 매출액은 3조 6,390억원(+36.3% yoy), 영업이익은 4,206억원(+117.4% yoy)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세를 전망한다. 대표 아티스트 IP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재개를 비롯한 저연차 IP(보넥도, 코르티스 등)의 고른 성장세가 전사 외형 성장 및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뚜렷하게 반영될 것이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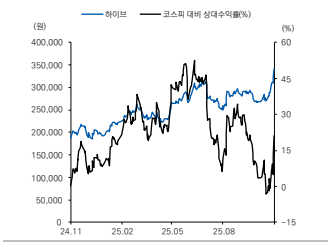
사업 부문별 매출액 성장성은 음반원 +24.5% yoy, 공연 +63.1% yoy, MD +18.7% yoy 각각 전망한다. P & Q 동반 상승 영향으로 공연 사업부가 전사 탑라인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며, 위버스향 광고 전략 수익화에 따른 간접 참여형 매출 기여 확대 역시 견조할 전망이다.

목표주가	395,000원 (U)
직전 목표주가	330,000원
현재주가 (10/31)	341,000원
상승여력	16%

시가총액	143,554억원
총발행주식수	42,115,022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747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258,441주
52주 고/저	341,000원 / 185,300원
외인지분율	20.38%
배당수익률	0.10%
주요주주	방시혁 외 9 인

주가수익률 (%)	1M	3M	12M
절대	28.2	31.4	83.8
상대	6.9	3.8	14.4
절대 (달러환산)	26.3	28.0	78.1

주가 및 상대수익률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십억원, %)

결산 (12월)	3Q25E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매출액	697	32.1	-1.2	686
영업이익	35	-35.0	-46.5	42
세전계속사업이익	40	흑전	29.3	40
지배순이익	36	462.7	98.5	30
영업이익률(%)	5.1	-5.2 %pt	-4.2 %pt	6.1
지배순이익률(%)	5.1	+3.9 %pt	+2.5 %pt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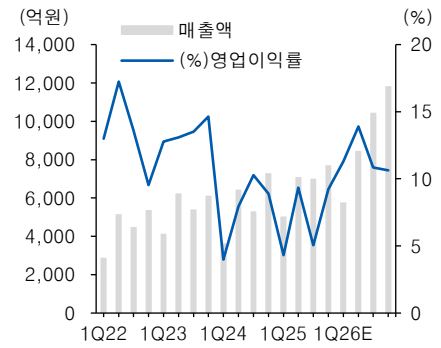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Forecasts and Valuation (K-IFRS 연결) (십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3A	2024A	2025F	2026F
매출액	2,178	2,256	2,671	3,639
영업이익	296	184	194	421
지배순이익	187	9	177	352
PER	51.6	877.7	80.5	40.8
PBR	3.3	2.6	4.6	4.1
EV/EBITDA	22.7	25.5	42.8	25.5
ROE	6.6	0.3	5.6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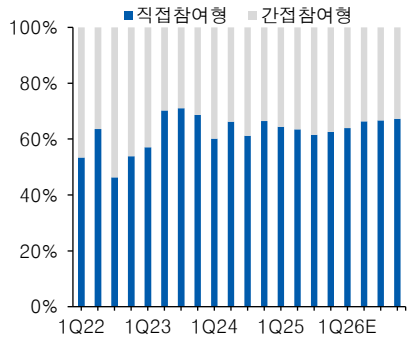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하이브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하이브 분기별 직접 & 간접 참여형 매출 비중 추이 및 전망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하이브 추정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E	4Q25E	2024	2025E	2026E
매출액	3,609	6,405	5,278	7,253	5,006	7,056	6,973	7,670	22,545	26,706	36,390
YoY	-12.1	3.1	-1.9	19.2	38.7	10.2	32.1	5.6	3.5	18.4	36.3
직접 참여형	2,170	4,239	3,230	4,814	3,225	4,479	4,289	4,802	14,453	16,795	24,141
(1)앨범	1,451	2,496	2,145	2,518	1,365	2,286	1,523	1,859	8,610	7,032	8,755
(2)공연	440	1,440	740	1,889	1,552	1,887	2,492	2,646	4,509	8,576	13,985
(3)광고, 출연료	278	303	345	408	308	306	274	297	1,334	1,186	1,401
간접 참여형	1,439	2,166	2,049	2,439	1,781	2,578	2,684	2,868	8,093	9,911	12,249
(4)MD&라이선싱	607	1,091	991	1,512	1,064	1,529	1,860	1,943	4,202	6,396	7,594
(5)콘텐츠	613	838	798	625	412	702	468	558	2,873	2,140	2,992
(6)팬클럽	219	237	260	302	305	346	357	367	1,018	1,375	1,663
매출원가	1,837	3,946	2,874	4,291	2,825	4,214	4,266	4,340	12,948	15,645	20,694
매출원가율	50.9	61.6	54.4	59.2	56.4	59.7	61.2	56.6	57.4	58.6	56.9
매출총이익	1,772	2,459	2,405	2,962	2,182	2,843	2,707	3,330	9,598	11,061	15,696
매출총이익률	49.1	38.4	45.6	40.8	43.6	40.3	38.8	43.4	42.6	41.4	43.1
판관비	1,628	1,950	1,863	2,317	1,965	2,184	2,354	2,622	7,758	9,126	11,490
판관비율	45.1	30.4	35.3	31.9	39.3	31.0	33.8	34.2	34.4	34.2	31.6
영업이익	144	509	542	645	216	659	352	708	1,840	1,935	4,206
YoY	-72.6	-37.4	-25.4	-27.6	50.3	29.4	-35.0	9.6	-37.8	5.1	117.4
영업이익률	4.0	7.9	10.3	8.9	4.3	9.3	5.1	9.2	8.2	7.2	11.6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하이브 (352820) 추정재무제표 (K-IFRS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결산(12월)	2022A	2023A	2024P	2025F	2026F
매출액	**2,178**	**2,256**	**2,671**	**3,639**	**3,821**
매출원가	1,169	1,296	1,564	2,069	2,121
매출총이익	1,009	960	1,106	1,570	1,700
판관비	713	776	913	1,149	1,181
영업이익	**296**	**184**	**194**	**421**	**520**
EBITDA	423	330	335	545	633
영업외손익	-46	-165	34	26	37
외환관련손익	11	38	-42	0	0
이자손익	0	-9	-12	-6	5
관계기업관련손익	11	-18	-1	12	12
기타	-67	-175	89	20	2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250	19	228	446	556
법인세비용	67	23	73	145	181
계속사업순손익	183	-3	154	301	375
중단사업순손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83	-3	154	301	375
지배지분순이익	**187**	**9**	**177**	**352**	**438**
포괄순이익	205	276	52	346	420
지배지분포괄이익	210	288	58	335	407

주: 이익 산출 기준은 기존 k-GAAP과 동일.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만 차감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결산(12월)	2022A	2023A	2024P	2025F	2026F
영업활동 현금흐름	**311**	**152**	**280**	**487**	**755**
당기순이익	183	-3	154	301	375
감가상각비	53	62	57	42	33
외환손익	6	-7	20	0	0
종속, 관계기업관련손익	-11	18	1	-12	-12
자산부채의 증감	-40	-148	-60	-19	186
기타현금흐름	119	230	108	174	172
투자활동 현금흐름	**-471**	**-10**	**-224**	**-827**	**-125**
투자자산	45	221	-33	-182	-26
유형자산 증가 (CAPEX)	-23	-33	-25	-20	-20
유형자산 감소	0	1	0	0	0
기타현금흐름	-494	-200	-167	-624	-79
재무활동 현금흐름	**-11**	**-118**	**157**	**13**	**-5**
단기차입금	167	-153	4	21	3
사채 및 장기차입금	-160	81	143	0	0
자본	-1,081	66	10	0	0
현금배당	0	-29	-8	-8	-8
기타현금흐름	1,063	-83	9	0	0
연결범위변동 등 기타	-3	31	-278	73	-228
현금의 증감	**-174**	**54**	**-65**	**-253**	**397**
기초 현금	532	358	412	347	93
기말 현금	358	412	347	93	490
NOPLAT	**296**	**184**	**194**	**421**	**520**
FCF	**288**	**119**	**255**	**467**	**735**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결산(12월)	2022A	2023A	2024P	2025F	2026F
유동자산	**1,889**	**1,788**	**2,274**	**3,056**	**3,583**
현금및현금성자산	358	412	347	93	49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75	311	365	561	571
재고자산	126	163	206	317	333
비유동자산	3,457	3,691	3,319	3,417	3,379
유형자산	101	97	84	62	49
관계기업등 지분관련자산	241	216	236	363	382
기타투자자산	482	547	384	439	447
자산총계	**5,346**	**5,479**	**5,593**	**6,473**	**6,962**
유동부채	1,772	831	830	1,276	1,34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591	448	515	792	831
단기차입금	100	0	0	0	0
유동성장기부채	725	100	0	0	0
비유동부채	464	1,134	1,378	1,475	1,489
장기차입금	100	386	636	636	636
사채	0	356	363	363	363
부채총계	**2,236**	**1,965**	**2,208**	**2,751**	**2,829**
지배지분	2,919	3,215	3,080	3,468	3,943
자본금	21	21	21	21	21
자본잉여금	1,570	1,636	1,646	1,646	1,646
이익잉여금	1,420	1,401	1,569	1,912	2,342
비지배지분	191	299	304	254	191
자본총계	**3,110**	**3,514**	**3,385**	**3,722**	**4,134**
순차입금	**-240**	**-125**	**-315**	**-689**	**-1,175**
총차입금	1,163	1,091	1,238	1,259	1,262

Valuation 지표					(단위: 원, 배, %)
결산(12월)	2022A	2023A	2024P	2025F	2026F
EPS	4,504	225	4,238	8,352	10,409
BPS	70,090	77,427	73,372	82,614	93,919
EBITDAPS	10,175	7,927	8,034	12,945	15,038
SPS	52,392	54,155	63,975	86,441	90,762
DPS	700	200	200	200	200
PER	**51.6**	**877.7**	**80.5**	**40.8**	**32.8**
PBR	**3.3**	**2.6**	**4.6**	**4.1**	**3.6**
EV/EBITDA	**22.7**	**25.5**	**42.8**	**25.5**	**21.1**
PSR	**4.4**	**3.6**	**5.3**	**3.9**	**3.8**

재무비율					(단위: 배, %)
결산(12월)	2022A	2023A	2024P	2025F	2026F
매출액 증가율 (%)	**22.6**	**3.6**	**18.4**	**36.3**	**5.0**
영업이익 증가율 (%)	**24.8**	**-37.7**	**5.2**	**117.3**	**23.5**
지배순이익 증가율 (%)	**257.9**	**-95.0**	**1,786.2**	**98.7**	**24.6**
매출총이익률 (%)	46.3	42.6	41.4	43.1	44.5
영업이익률 (%)	**13.6**	**8.2**	**7.2**	**11.6**	**13.6**
지배순이익률 (%)	8.6	0.4	6.6	9.7	11.5
EBITDA 마진 (%)	19.4	14.6	12.6	15.0	16.6
ROIC	13.2	-1.6	6.3	14.6	18.3
ROA	3.7	0.2	3.2	5.8	6.5
ROE	**6.6**	**0.3**	**5.6**	**10.7**	**11.8**
부채비율 (%)	71.9	55.9	65.2	73.9	68.4
순차입금/자기자본 (%)	-8.2	-3.9	-10.2	-19.9	-29.8
영업이익/금융비용 (배)	6.3	3.7	3.9	8.2	10.1

자료: 유안타증권

주: 1. EPS, BPS 및 PER, PBR은 지배주주 기준임
2. PER등 valuation 지표의 경우, 확정치는 연평균 주가 기준, 전망치는 현재주가 기준임
3. ROE, OA의경우, 자본, 자산 항목은 연초, 연말 평균을 기준일로 함

APEC 2025

반도체

백길현, USCPA

반도체

02 3770 5635
gilhyun.baik@yuantakorea.com

반도체:

1. 정상외교와 산업행동이 결합된 APEC 2025

이번 APEC 정상회담은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과 기술 협력 강화**가 핵심 의제로 부상한 회의였다. 채택된 Gyeongju Declaration 은 'Connect, Innovate, Prosper'라는 슬로건 아래 아·태 지역의 무역·투자 확대, 디지털·기술 혁신, 공급망 안정화를 주요 과제로 명시했다. 특히 8 항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일부로서 공급망 회복력(Resilient supply chains)을 확보하겠다'는 문구는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공식화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또한 6 항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 4 항의 '무역투자 환경의 회복력 확보' 등의 문구를 통해, 향후 반도체 및 ICT 산업 전반의 정책 환경이 보다 협력적이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상 및 장관급 발언 역시 공급망과 반도체를 둘러싼 각국의 전략적 인식을 드러냈다. 미국 재무장관 Scott Bessent 는 "반도체·에너지·희토류 등 핵심 공급망을 강화하고 다양화하겠다"고 언급하며 공급망 리더십 복원을 강조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공급망을 끊기보다는 잇고(Chain extend), 멈추기보다는 발전해야 한다(Join hands)"며 기술 협력과 개방형 시스템을 옹호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또한 "보호무역과 민족주의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급망 협력과 기술 혁신의 공조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만 대표단은 미국과 칩 공급망 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양자 간 연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번 회의는 **정상 외교와 산업 행위가 동시에 전개된 이례적인 구조**이다. APEC CEO Summit 2025(10 월 28~31 일, 경주 Arts Center)에서는 AI, 공급망, 반도체, 디지털 전환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글로벌 기업 7 개사가 약 90 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하이테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각국 정상들이 자국 주요 기업인 및 산업 리더들과 동반 참여해 정책-산업-자본이 결합된 협력 플랫폼이 형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들이 기업 간담회와 투자 협약식에 직접 참여하면서, 기술 동맹 논의가 실제 사업 협력과 투자로 이어지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주요 반도체·ICT 기업들 역시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차세대 공정, 패키징, AI 반도체 기술을 공개하며 글로벌 공급망 내 역할을 강화했다. 일부 기업은 공동 연구개발 및 현지 투자 확대를 공식화하며 실질적 협력 단계를 진전시켰다. 결과적으로 이번 APEC 은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민간 제조업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이자 외교 자산으로 기능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각국의 정책 방향과 기업의 투자 결정이 동시에 가시화된 회의로 평가된다.

2. NVIDIA - 삼성전자: 25년 협력의 결실 → 진화하는 기술 동맹

25년 넘게 이어온 삼성전자(0005930 KS)와 엔비디아(NVDA US)의 기술 협력이 맺은 결실로, 양사는 공동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Semiconductor AI Factory)' 구축에 착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반도체 제조 전 과정에 AI 기술을 내재화해, 설계–공정–검증–패키징이 하나의 지능형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새로운 생산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삼성전자는 이미 일부 공정 단계에서 엔비디아의 GPU 및 AI 플랫폼을 활용해 AI 팩토리 기반을 다져왔으며, 이번 협력을 통해 그 범위를 전사적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엔비디아의 AI 컴퓨팅 기술 '쿠리소(cuLitho)'와 '쿠다-X(CUDA-X)'를 도입, 미세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로 왜곡을 AI가 실시간으로 예측·보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 시뮬레이션 속도를 기존 대비 20배 이상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설계 정확도와 개발 속도를 동시에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Omniverse 플랫폼을 활용해 실제 생산 설비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구현했다. 이 시스템은 가상공간에서 공정 데이터를 학습하고, 실제 로봇 생산라인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이상 감지·고장 예측·생산 일정 최적화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제조 공정의 예지정비(Predictive Maintenance)와 자동보정(Auto Correction) 기능이 가능해졌으며, 생산 효율성과 수율 안정성이 크게 강화됐다.

그림. NVIDIA - 삼성전자 - 현대차의 깐부 회담

자료: THE FACT(2025년 10월),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NVIDIA와 삼성전자의 협력 분야 - 디지털 트윈스

자료: NVIDIA(2025년 11월),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향후 양사는 이 AI 팩토리 모델을 평택, 미국 테일러 등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확장해, 반도체 공급망 전반의 지능화와 효율화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Jetson Thor 로보틱스 플랫폼과 RTX PRO 6000 Blackwell 서버 에디션을 기반으로, AI 모델·휴머노이드 로봇·AI-RAN(지능형 무선 네트워크) 등 차세대 산업 영역으로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GPU 기반의 '메가트론(Megatron)'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자체 AI 모델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실시간 번역, 다국어 대화, 지능형 요약 등 생성형 AI 분야에서 고도화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AI 팩토리의 운영 효율뿐 아니라, 향후 로보틱스·스마트 제조·디지털 트윈 생태계 전반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협력은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단순한 '고객-공급자' 관계를 넘어, AI 시대의 산업 구조 자체를 재정의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AI 팩토리 프로젝트는 향후 반도체 생산성 향상을 넘어, AI 모델 학습-로보틱스-데이터센터 인프라로 이어지는 기술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AI 반도체의 설계·제조·활용이 하나의 순환 구조(Closed Loop)로 연결되는 통합 플랫폼으로, 삼성전자가 향후 엔비디아와 함께 글로벌 AI 인프라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판단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향후 AI 생태계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0월 31일 삼성전자 뉴스룸에 따르면, 삼성전자(0005930 KS)는 AI 팩토리 구축과 함께 엔비디아(NVDA US)에 ▲HBM3E ▲HBM4 ▲GDDR7 ▲SOCAMM2 등 차세대 메모리와 파운드리 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글로벌 전 고객사에 HBM3E를 공급 중이며, HBM4 역시 주요 고객사에 샘플 출하를 완료하고 양산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한국 기자간담회에서 "HBM(High Bandwidth Memory)이 없다면 AI 슈퍼컴퓨터는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했다. **단순히 반도체 공급 차원을 넘어, AI-메모리-파운드리로 이어지는 전략적 파트너십 구조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주목**한다. 또한 젠슨 황 CEO가 직접 언급했듯,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로보틱스 프로세서를 생산하는 주요 파운드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어, **향후 양사 간 협력은 반도체 제조를 넘어 로보틱스·AI 컴퓨팅·데이터센터 아키텍처로 확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NVIDIA - SK하이닉스: 핵심 밸류체인 파트너로서 입지 강화

SK하이닉스(000660 KS)는 최근 엔비디아와 2026년까지의 HBM 공급 협의를 최종 마무리하며,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공고히 했다. 올해 글로벌 수요 변동과 성능 사양 재조정 등 대외 변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사는 공급 물량 및 제품 믹스 확정에 합의하며 중장기 협력 구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HBM 수요 급증으로 SK하이닉스의 HBM 라인업은 2023년 이후 지속적인 'Sold-out'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수익성 방어가 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HBM4 개발 방향에 대한 고객사의 스펙 상향 요구를 대응했으며, SK하이닉스는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객 요구 스펙에 맞춘 HBM4 샘플을 제공했으며, 대량 공급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공급 계약을 넘어, AI 반도체 가치사슬(Value Chain) 내에서 메모리의 역할이 재정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연산 성능의 한계가 메모리 대역폭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변화하면서, HBM은 더 이상 보조 기억장치가 아닌 'AI 컴퓨팅의 핵심 연산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SK하이닉스는 이러한 구조 전환 속에서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이자 글로벌 AI 인프라의 메모리 허브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으며, **HBM4 이후에도 고성능·저전력 메모리 기술을 선도하며 AI 수요 확산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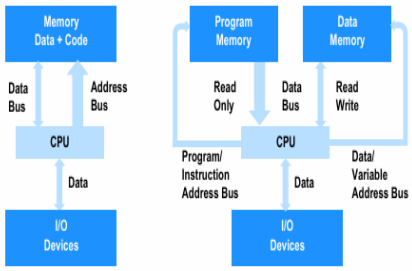
그림. NVIDIA CEO 와 SK 최태원 회장의 '월드 베스트 HBM4 제품' 감사패 전달식

자료: 국민일보(2025년 10월),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 반도체 업종 전망 및 투자 전략

글로벌 AI 확산은 이제 데이터 센터–반도체–로보틱스–클라우드로 이어지는 산업 가치사슬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GPU는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의 10년을 여는 초입에 있다"고 언급했듯, AI 인프라 투자는 초기 확산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 가속 국면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AI 연산 효율의 근간이자 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림. 폰 노이만 구조와 하버드 구조 비교 -1



자료: 업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왼쪽 그림 = 폰 노이만 구조, 오른쪽 그림 = 하버드 구조 반영

표. 폰 노이만 구조와 하버드 구조 비교

항목	폰 노이만 구조	하버드 구조
메모리 구성	명령어와 데이터를 같은 메모리 공간에 저장	명령어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를 분리 저장
명령어/데이터 저장 위치	RAM에 함께 저장됨	명령어는 ROM, 데이터는 RAM에 저장
버스 구조	단일 버스 (명령어/데이터 공유)	이중 버스(명령어/데이터 분리)
동시 처리 가능 여부	명령어 fetch와 데이터 access가 번갈아 수행됨	고정된 명령어와 데이터를 동시에 접근 가능
장점	설계 단순, 범용 시스템에 적합	병렬 처리 효율 우수, 메모리 충돌 없음
단점	버스 병목(Memory Wall) 발생 가능	설계 복잡, 고정된 메모리 전제로 인한 비효율성
적용 사례	대부분의 CPU 아키텍처(x86, ARM 등)	MCU, DSP, 일부 AI 엣지 So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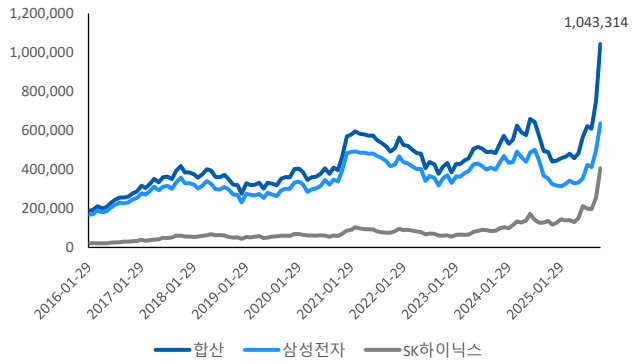
자료: 업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특히 HBM을 중심으로 한 고대역폭 메모리는 AI 칩 성능의 병목을 해소하는 핵심 인프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의 'AI 팩토리' 구축을 통해 제조–설계–테스트 전 과정을 AI로 통합하는 지능형 생산 체계를 구현 중이며, SK하이닉스 역시 2026년까지의 HBM 공급 협의를 마무리하며 차세대 AI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고객–공급자 관계를 넘어, AI–반도체–로보틱스가 결합된 수직적 혁신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주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이번 무역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향후 관세 정책의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으나, 동시에 미국의 2,000억 달러 규모 AI·첨단 제조 투자 계획과 맞물리며, 한국 반도체 기업에게는 미국 내 **공급망 파트너로서의 전략적 역할 확대 기회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동시에 글로벌 AI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AI 반도체의 핵심 밸류체인 허브'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메모리·파운드리·AI 반도체·로보틱스 등 전방위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한국은 향후 AI 시대의 산업 생산성과 컴퓨팅 효율을 재정의하는 주체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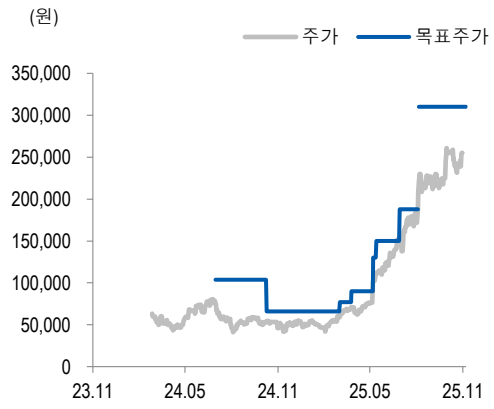
AI 인프라 확산이 중장기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메모리 중심의 AI 밸류체인에 대한 구조적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협상 및 공급망 재편 이슈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이는 **오히려 글로벌 AI 생태계 내 한국 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국면**일 것으로 추정한다. **삼성전자**는 AI 팩토리를 축으로 한 제조혁신과 차세대 HBM·파운드리 기술을 기반으로 AI 인프라 전방 투자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재차 부각될 전망이며,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1위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계약을 바탕으로 AI 메모리 성장 사이클의 핵심 플레이어이다.

차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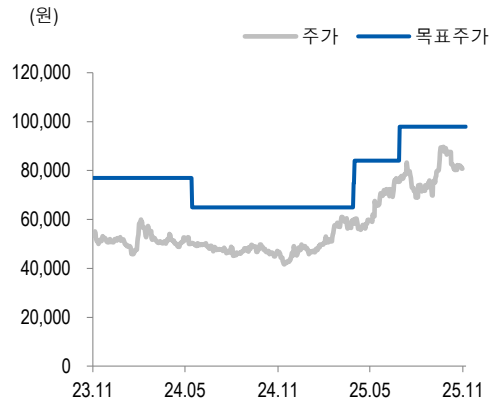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단위는 십억원 기준

에이피알 (27847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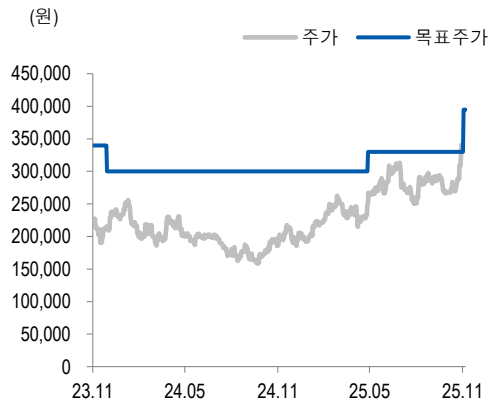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 격 대상시 점	괴리율	
				평균주 가 대비	최고(최 저) 주가 대 비
2025-11-03	BUY	310,000	1년		
2025-08-07	BUY	310,000	1년		
2025-06-30	BUY	188,000	1년	-10.46	-0.37
2025-05-15	BUY	150,000	1년	-15.25	1.07
2025-05-09	BUY	130,000	1년	-17.69	-15.85
2025-03-27	BUY	90,000	1년	-21.33	9.33
2025-03-04	BUY	77,000	1년	-12.95	-9.35
2024-10-10	BUY	66,000	1년	-22.42	-8.94

현대백화점 (06996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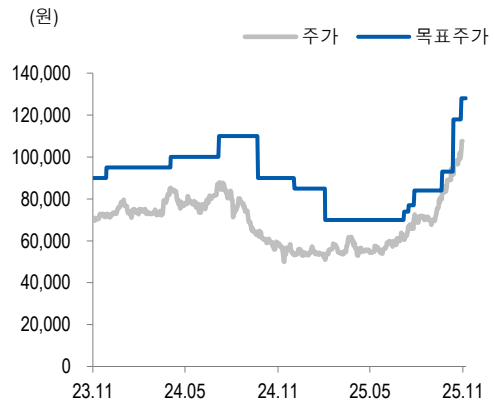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 격 대상시 점	괴리율	
				평균주 가 대비	최고(최 저) 주가 대 비
2025-11-03	BUY	98,000	1년		
2025-06-30	BUY	98,000	1년		
2025-04-02	BUY	84,000	1년	-22.08	-8.57
2025-03-31	BUY	75,000	1년	-20.93	-20.93
2024-05-16	BUY	65,000	1년	-24.70	-6.15
2023-08-09	BUY	77,000	1년	-28.87	-8.05

하이브 (35282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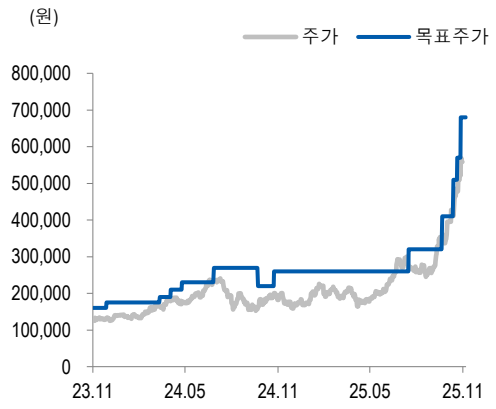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11-03	BUY	395,000	1년		
2025-04-29	BUY	330,000	1년	-14.29	3.33
2024-11-30	1년 경과 이후		1년	-24.96	-12.50
2023-11-30	BUY	300,000	1년	-33.24	-14.67
2023-05-30	BUY	340,000	1년	-26.92	-9.71

삼성전자 (00593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11-03	BUY	128,000	1년		
2025-10-30	BUY	128,000	1년		
2025-10-14	BUY	118,000	1년	-16.63	-13.56
2025-09-22	BUY	93,000	1년	-6.42	1.51
2025-07-29	BUY	84,000	1년	-14.52	-4.17
2025-07-18	BUY	77,000	1년	-12.88	-8.57
2025-07-09	BUY	74,000	1년	-14.14	-9.86
2025-02-03	BUY	70,000	1년	-18.56	-8.86
2024-12-04	BUY	85,000	1년	-36.17	-32.59
2024-04-04	BUY	100,000	1년	-20.88	-12.90

SK 하이닉스 (00066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 격 대상시 점	괴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11-03	BUY	680,000	1년		
2025-10-29	BUY	680,000	1년		
2025-10-22	BUY	570,000	1년	-10.33	-6.14
2025-10-14	BUY	510,000	1년	-9.61	-4.80
2025-09-22	BUY	410,000	1년	-9.60	4.39
2025-07-18	BUY	320,000	1년	-13.38	10.31
2024-10-25	BUY	260,000	1년	-21.49	15.38
2024-09-23	BUY	220,000	1년	-16.54	-9.91
2024-06-28	BUY	270,000	1년	-28.97	-10.74
2024-03-13	BUY	190,000	1년	-9.36	-1.95

구분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3.6
Hold(중립)	6.4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5-11-02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승은, 이환욱, 백길현)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Korea)

Head of Research Center 윤여철
3770-3522 / ycyoon@yuantakorea.com

부센터장 2차전지/신에너지 이안나
3770-5599 / anna.lee@yuantakorea.com

투자전략

팀장 Strategist	김용구	3770-3521	yg.kim@yuantakorea.com
Fixed Income Strategist	이재형	5579	jaehyung.lee@yuantakorea.com
Global Strategist	민병규	3635	byungkyu.min@yuantakorea.com
Passive/ ETF Analyst	고경범	3625	gyeongbeom.ko@yuantakorea.com
Economist/ESG	김호정	3630	hojung.kim@yuantakorea.com
US Market Analyst	황병준	3523	byeongjun.hwang@yuantakorea.com
Quant Analyst	신현용	3634	hyunyong.shin@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박성철	3632	seongcheol.park@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임지윤	3527	jiyoon.lim@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김혜원	3526	hyewon.kim@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김세빈	3646	sebin2.kim@yuantakorea.com

기업분석

팀장 2차전지/신에너지	이안나	3770-5599	anna.lee@yuantakorea.com
인터넷/SW	이창영	5596	changyoung.lee@yuantakorea.com
정유/화학	황규원	5607	kyuwon.hwang@yuantakorea.com
스몰캡	권명준	5587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철강/비철금속	이현수	5718	hyunsoo.yi@yuantakorea.com
화장품/의료기기/유통	이승은	5588	seungeun.lee@yuantakorea.com
제약/바이오	하현수	2688	hyunsoo.ha@yuantakorea.com
통신/지주	이승웅	5597	seungwoong.lee@yuantakorea.com
조선/자동차	김용민	5606	yongmin.kim@yuantakorea.com
미디어/엔터/디지털자산	이환욱	5590	hwanwook.lee@yuantakorea.com
음식료/전력기기	손현정	5595	hyunjeong.son @yuantakorea.com
반도체	백길현	5635	gilhyun.baik@yuantakorea.com
금융	우도형	5589	dohyeong.woo@yuantakorea.com
전기전자	고선영	3525	sunyoung.kou@yuantakorea.com
방산/AI/로보틱스	백종민	5598	jongmin.baik@yuantakorea.com
운송	최지운	3640	jiyun.choi@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김도엽	5580	doyub.kim@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서석준	5585	seokjun.seo@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조혜빈	5594	hevin.cho@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한동우	3647	dongwoo.han@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임석민	3648	seokmin.lim@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김고은	3649	koeun2.kim@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배종성	3643	jongsung.bae@yuantakorea.com

채권분석

팀장 Credit Analyst	유태인	3770-5571	taein.yoo@yuantakorea.com
Credit Analyst	김현수	5582	hyunsoo.kim@yuantakorea.com
Credit Analyst	공문주	5586	moonju.kong@yuantakorea.com
Credit Analyst	이소윤	5572	soyoon.lee@yuantakorea.com
Credit Analyst	황태웅	5578	taewoong.hwang@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선여원	5583	yeowon.sun@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현정희	5570	junghee.hyun@yuantakorea.com

YUANTA

APEC 2025

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Korea)